

3월

(가)와 (나)의 인격 함양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의 ‘㉠학생 봉사활동’에 대해 논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가

사람의 본성은 악한데 그 선한 모습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인제 사람의 본성을 살펴보면, 타고날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다. 이 성질을 따르기 때문에 쟁탈이 발생하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다. 또한 사람의 본성에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 성질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고 충성과 믿음이 없다. 또,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아름다운 소리와 아름다운 색을 좋아한다. 이 성질을 따르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예의와 규칙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타고난 본성을 따르고 사람의 감정에 순응하면 반드시 쟁탈이 일어나고, 신분 질서를 해치고, 이치를 어지럽혀서 포악한 사회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화, 예의에 의한 인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 규범과 합치되어 잘 다스려진 사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통해 본다면 사람의 본성이 악한 것은 분명하다. 사람이 선한 모습을 갖는 것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 『순자(荀子)』

나

조교(曹交)가 물었다.

“사람이 다 요순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사실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렇소.”

조교가 물었다.

“제가 듣기로 문왕은 키가 10척(尺)이고 탕은 9척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9척 4촌(寸)이 되지만 곡식만 축내고 있을 뿐이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소? 단지 실천하고자 하면 되는 것이요. 여기 어떤 사람이 오리 한 마리도 들 수 없다면 그는 무력인(無力人)이 될 것이요. 그러나 만일 백근(百鈞)*을 든다면 그는 역인(力人)이 될 것이요. 오획(烏獲)*이 들던 무게를 든다면 이는 또한 오획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요. 사람들은 어찌하여 감당하지 못할까 미리 걱정하는 것이요. 스스로 그리하지 않으려는 것에 불과할 뿐이요. 서행하여 장자(長者)보다 뒤에 가는 것을 공경함, 빨리 걸어 장자보다 앞서 가는 것을 불공함이라고 하오. 무릇 ‘서행’이 어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겠소? 단지 하지 않는

것일 뿐이오. 요순지도(堯舜之道)는 효제(孝悌)*일 뿐이오. 그대가 요와 같은 옷을 입고, 요의 말을 하고, 요의 행실을 하면 바로 요가 되오. 그러나 걸(桀)*의 옷을 입고, 걸의 말을 하고, 걸의 행실을 행하면 바로 걸이 되는 것이오.”

- 『맹자(孟子)』

* 백군: 3,000근

* 오환: 진나라 때의 역사. 힘이 센 사람을 이름

* 요순지도는 효제: 요순의 도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

* 걸: 중국 하나라의 마지막 왕. 은나라의 주왕과 나란히 중국 상고시대의 폭군으로 대표됨

다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은 지난 199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초·중·고교에서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소홀해진 인성교육을 보완하는 데에 ㉠학생 봉사활동이 도움이 된다는 교육부가 도입했다. 이후 학생 봉사활동은 2000년 제7차 교육과정 특별활동 영역에 포함되어 교육의 한 영역으로 정착됐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봉사활동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데 필요한 점수 따기 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일보, 2014. 06. 07, 학생기자